

# 5·18 특별법 진상규명위 '계엄군 성폭행' 조사도 포함된다

### 증언·제보 잇따라...최경환·손금주 의원 개정안 발의

### '국가가 저지른 성범죄'...피해여성들 철저한 조사 촉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계엄군들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주요 조사대상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 사건이 추가됐다. 최 의원은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범죄 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의 죄 등'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을 따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5·18 당시 계엄군의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키는 5·18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에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과 제보가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도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80년 5월 항쟁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당한 성범죄는 최근 피해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승전진대회에서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당사자 증언으로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 10일 광주 5·18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개막한 '5·18영장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는 항쟁 당시 전남도청에 안내방송을 했던 김선옥씨가 계엄군에게 당한 성폭

행 증언이 소개됐다. 5·18 당시 계엄군 만행을 알리고자 거리방송에 참여한 차명숙 씨도 505보안대와 상무대 영장 등을 거지며 성고문 등 갖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지지율에 취해 자만하지 말자"

###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

#### 후보들 참석 압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 설훈·신경민 국회의원,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와 임택 동구청장 후보 등 이 참석한 가운데 '6·13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당 필승 전진대회'를 했다.

이형석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2년 전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지난 역사를 설욕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선거에 집중해 광주에도 국회의원 배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괴리시키려 하는 호남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 앞에서 겸손하며 오만하지 않고 읍소하고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

지는 선거인 만큼,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신경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만하지 말고 발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하고 모두 승리해야 한다"며 "그래서 광주가 시장부터 시의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를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마비된 국회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 설훈 의원은 "망월동이 아니라 광주 전체가 민주화의 성역이어야 하고, 민주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광주에서 압승하자"면서 "선거의 가장 큰 적은 자만이며, 기초의원 출마자들까지 모두 승리를 해서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광주지역 최연소 민주당 후보인 박진일(28) 동구 가 선거구 예비후보도 무대에 올라 "현재 민주당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총선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민주 당원명부 유출 때늦은 수사 속도...여수·전북서도 유출

### 광주경찰 4개월만에...보완 수사 마무리 혐의 입증 주력

### "관련자 사법처리·이용섭 후보 소환 조사 여부 곧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사건 수사에 때늦은 속도를 내고 있고, 여수를 비롯해 전북, 제주, 충북 등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당사자들이 경선을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이 광주시당 경선이 마무리된 뒤 때늦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적 영향을 우려해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에도 4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난 검·경이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당원명단 유출 등과 관련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광주경찰청에 당원명단 유출과 관련, 광주시당 출마 예비후보인 이 전 부위원장을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지난달 2일 관련 수사를 보완하라고 수사지휘를 함에 따라 그동안 보완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에게 대한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 결정되면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라도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된 당사자인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사법처리 여부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전 부

위원장을 제외한 수사대상자들이 피의자 신분인 아닌 탓에 (당원명단 유출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게되면, 이들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되는 만큼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라도 혐의 내용을 입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검·경 관계자는 "(당원)명단 유출 부분은 확인한 상태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피고소인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원명단을 유출한 전 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A 씨, 해당 명단을 인수해 광주지역 당원에 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의 (당원명단 유출에 대한)연관성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입증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일각에서 수사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의미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경찰서도 민주당 여수갑 지역 권리당원 명단이 경선 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녹취록 등을 입수, 사실을 확인중이다. 경찰은 권리당원 명부 유출 내용이 담긴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도당 간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20여 분 분량의 녹취록을 입수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에서는 검찰이 전북도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이고, 제주에서도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권리당원 명부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경선물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0%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경선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 신경전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일 이전에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나올 경우 후보들이 뒤바뀌거나 선거 이후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8년 무안공항공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공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짜짜우~~~

#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칸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아이마치폭격 699,000 원~

###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동격 준특급 + 특급] 1,290,000~  
 [고급격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항공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특격 5성급] 1,350,000~

국선수가 요건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 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짜짜우~~~

VN 베트남국영항공사 (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베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광주출,도착 ALL 포함 4,600,000원

### 광주 - 제주도

2박3일 (주중) 299,000원~ / 2박3일 (주말) 3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안 → 방콕 파타야 정기편 제주항공

준특급 : 649,000원~ 특급 : 699,000원~ (6/20출발확정)

※ 임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고품조관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보험), 1박당,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2/정 지역)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참가 요건은 상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여권 발급비용 포함 / 여행항공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최소 규정) 및 항공권은 반드시 항공회사로 발송됩니다. ※ 김해공항, 기사/기타도 통시료, 선적금, 각종 배리어 포함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 조이투어